

# 대한상의 브리프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제72호 2018년 6월 25일



세계 3대 전자산업전시회 중 하나인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를 미리 소개하는 프레스 콘퍼런스 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미리 본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를 통해 최신 전자·IT산업의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전시장 최신 트렌드를 읽다 ... 프리 이파(Pre-IFA)

독일 베를린에서 매년 9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국제가전박람회(IFA)가 열린다.

IFA를 공동주최하는 메세베를린과 독일가전통신산업협회(GFU)는 행사 5개월 전 글로벌 프레스 콘퍼런스(GPC)를 열어 가전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소개하는데, 이 행사를 프리 이파(Pre-IFA)라고도 부른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취재진은 이 행사를 통해 IFA의 큰 줄기를 미리 짚어보곤 한다.

프레스 콘퍼런스 행사장을 장악한 중국의 모습은 베끼기에 급급했던 그간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한국, 미국 등 기존 가전·IT 강국과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면서 자신감이 충만해진 중국이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를 넘어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려고 용틀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 가전·IT시장 넘보는 ‘차이나 파워’

샤프와 TCL, 화웨이 등 중국계 기업들의 ‘집안 잔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마치 올해 IFA를 통해 본격적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선전포고’의 장(場) 같았다.

### 차세대 방송영상 혁신, 8K TV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2016년 말 대만 홍하이(鴻海)그룹에 편입된 ‘샤프’였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50개국 320여 명의 기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제품도 샤프가 호텔 로비에 전시한 ‘70인치 8K TV’였다.



### [ 국제가전박람회의 전초전 - 프리 이파(Pre-IFA) ]



▲ IFA 사무국



#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8K(7680×4320)는 FHD(풀HD·1920×1080)보다 16배, UHD(울트라HD·3840×2160)보다 4배 더 선명한 화질의 초고해상도 TV다.

샤프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70인치 제품을 선보였다. 샤프는 이 제품을 중국, 일본, 대만에 이어 유럽 판매를 선언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콘텐츠 부재를 이유로 아직 시장에 제품을 내놓지 않아 '무주공산'이 된 8K TV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다.



## [ 샤프의 8K TV 전시 모습 ]



## 프리미엄 TV시장에 중국 TCL 추격 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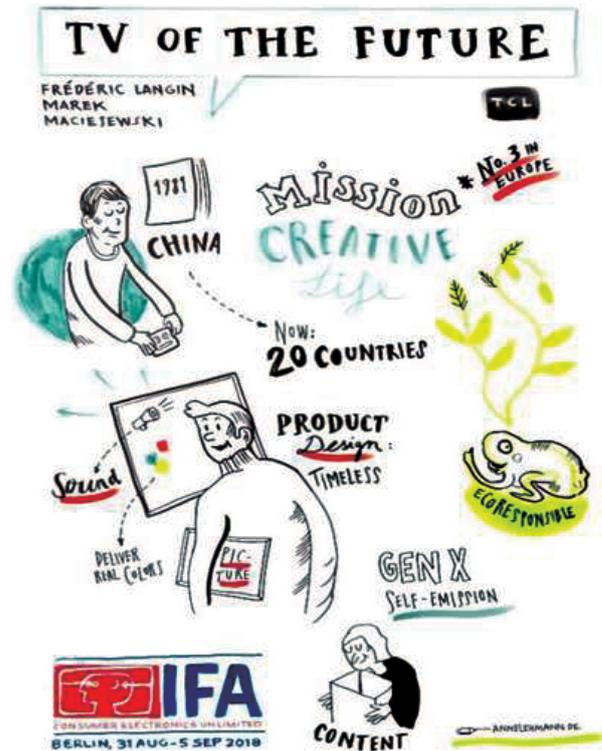
지난해 세계 TV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20%), LG전자(12%)가 선두를 지켰다. 하지만 글로벌 프리미엄 TV시장 역시 중국의 추격이 매섭다.

세계 시장 점유율 11%로 3위를 랭크한 중국 가전 기업 TCL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65인치와 75인치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양산에 들어가면 대형 TV의 가격도 크게 낮춰 TV의 대형화 트렌드를 주도하겠다는 당찬 출사표를 던졌다.

삼성과 함께 QLED 진영인 TCL은 2020년 이후에는 자발광 QLED TV도 선보일 계획이다.



## [ TCL의 유럽 TV시장 전략과 목표 ]



▲ IFA 사무국

## 화웨이 '폰카 르네상스' 선언

최근 IT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인 중국의 화웨이는 기술력을 뽐내며, '폰카 르네상스'를 선언했다.

명품 카메라 브랜드인 라이카와 협업해 3개의 렌즈를 조합한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르네상스'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트리플 카메라는 4000만 화소의 RGB센서와 2000만 화소 흑백센서, 800만 화소 망원센서로 구성됐다. 라이카 망원렌즈로 최대 5배의 하이브리드 줌 장거리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삼성이 선보인 초당 960프레임의 슈퍼 슬로 모션도 지원한다.

피터 고든 화웨이 수석 마케팅 매니저는 “AI(인공지능) 적용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 트리플 카메라 스마트폰 일본 광고 ]



▲ NTT 도코모

## 삼성 LG도 안심 못 해... 중국 가전 굴기

취재현장에서 만난 중국 매체의 기자는 “요즘 중국에서 삼성, LG 제품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현지 브랜드 제품도 성능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굳이 삼성, LG 제품을 찾지 않고 자국 브랜드를 쓴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가성비’를 따져보면 샤오미, 하이얼이 삼성, LG보다 낮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우호적인 자국시장을 등에 업고 중국의 가전, IT 기업들은 날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국내 가전업체 관계자는 “오히려 우리가 기술 격차를 걱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고 할 정도다.

중국의 ‘가전 굴기’는 세계를 향해 거침이 없다. 기세만 보면 우리 기업을 뛰어넘을 태세다. 놔 놓고 있다간 꿈쩍없이 당할 수 있다. 단단히 정신 차려야 한다. 🇨🇳

# 국내·외 경제지표

2018년 6월 25일 기준

##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6	2017 <sup>(E)</sup>	IMF		OECD	
			2018 <sup>(P)</sup>	2019 <sup>(P)</sup>	2018 <sup>(P)</sup>	2019 <sup>(P)</sup>
한국	2.8	3.1	3.0	2.9	3.0	3.0
세계	3.2	3.8	3.9	3.9	3.8	3.9
미국	1.5	2.3	2.9	2.7	2.9	2.8
중국	6.7	6.9	6.6	6.4	6.7	6.4
일본	1.0	1.7	1.2	0.9	1.2	1.2
EU	2.0	2.3	2.4	2.0	2.2	2.1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 2. 환율·유가<sup>1)</sup>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5	2016	'17.11월	12월	'18.2월	3월	4월	5월
원/달러	1,131	1,161	1,105	1,086	1,080	1,072	1,068	1,076
원/엔(100엔)	934	1,068	979	961	998	1,011	994	981
원/위안	180.1	174.4	166.8	164.5	171.0	169.6	169.8	169.2
원/유로	1,255	1,283	1,296	1,284	1,332	1,323	1,312	1,272
유가(Dubai)	32.2	53.8	60.82	61.61	62.72	62.74	70.05	75.45

##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5	2016	'17.11월	12월	'18.2월	3월	4월	5월
산업생산	1.9	3.0	1.4	-0.8	-1.2	-0.6	2.0	-
소매판매	4.1	4.3	5.3	1.4	6.5	7.0	5.3	-
설비투자	6.9	-1.3	6.7	2.5	9.5	-0.1	0.6	-
수출	-8.0	-5.9	9.6	8.9	3.9	6.1	-1.5	13.5
수입	-16.9	-6.9	12.8	13.6	14.9	5.2	14.5	12.6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